

2016 지방직 9급 해설 C책형

1. 정답 ③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1.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정답 ②

‘개제’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을 뜻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를 뜻하는 ‘계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자생: 저절로 나서 자람.

③ 성패: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④ 유례: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3. 정답 ①

① 타율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타율, 한, 독보적, 기록 - 4개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상자, 것 - 2개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친구, 외, 사람 - 3개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모퉁이, 얼굴, 이 - 3개

4. 정답 ③

‘충분(充分)’은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게 쓰였다.

① 규정(規程 법 규, 한도 정): 조목별로 정하여 놓은 표준.

규정(規定 법 규, 정할 정):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② 구조(救助 구원할 구, 도울 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조(構造 엮을 구, 지을 조):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

③ 충분(充分 채울 충, 나눌 분): ‘충분하다(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의 어근.

④ 현상(懸賞 달 현, 상줄 상):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현상(現象 나타날 현, 모양 상):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5. 정답 ④

‘후생가외’는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이므로 ④의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② 일패도지(一敗塗地):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 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을 이르는 말

③ 수서양단(首鼠兩端):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④ 후생가외(後生可畏):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6. 정답 ①

영수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책임은 개인(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수는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라고 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7. 정답 ②

제시문은 ‘위기’라는 단어에 대한 서양인과 동양인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서양인들은 위기를 잘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양인들은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8. 정답 ③

①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왕이 ‘대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으므로 ‘주몽’과 ‘대소’가 모의했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황천후토(皇天后土)’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뜻하는 말이다. 주몽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황천후토’에게 청원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으므로 ‘신’과 교통했다고 볼 수 있다.

9. 정답 ③

밑줄 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은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③이 제시문의 내용과 가장 유사하다.

10. 정답 ②

용어에 대한 정의는 찾을 수 없다.

① 세 번째 문단에서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해 꺾련을 피우는 사람과 시가를 피우는 사람을 차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첫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견해를 일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④ 꺾련이 비판받는 현상과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을 비교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11. 정답 ②

뒹(어간) + 밥(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질(어간) + 푸르다(형용사): 비통사적 합성어

① 열(어간) + 쇠(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 '열(어간) + 르(어미) + 쇠(명사)'에서 동음 탈락에 의해 '르'이 탈락되었다고 보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새(접두사) + 빨갳다(형용사): 파생어

③ 감(어간) + 발(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돌(어간) + 아(어미) + 가다(동사): 통사적 합성어

④ 켜(어간) + 은(어미) + 이(명사): 통사적 합성어

가로(부사) + 막다(동사): 통사적 합성어

12. 정답 ③

'-이예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거예요'와 '거여요' 둘 다 가능하다.

① 치뤄야 → 치러야: 기본형이 '치르다'이므로 '치러야'로 활용한다. 사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가 들어갈 수 없다.

② 뒤쳐진 → 뒤쳐진: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를 뜻하는 '뒤쳐지다'를 써야 한다. '뒤쳐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를 뜻하는 단어다.

④ 잠귀 → 잠가: 기본형이 '잠그다'이므로 '잠가'로 활용한다. 사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가 들어갈 수 없다.

13. 정답 ①

'으로'와 '부터'는 조사이므로 모두 붙여 써야 한다. '-여'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년'은 의존명사, '전'은 명사이므로 '년'과 '전'은 띄어 써야 한다.

② 정한√대로: '정한'이 관형어이므로 '대로'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띄어 써야 한다.

③ 요청√시, 재조명하여야: '요청 시'의 '시'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고, '재조명하다'는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추진력마저: '마저'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4. 정답 ②

㉔의 뒤는 앞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그러나'를 고칠 필요가 없다.

① '돌파하다'는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다,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다,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 내다.’를 뜻하므로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를 뜻하는 ‘탈피하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더욱 중요한 것은’과 호응하기 위해 서술어를 ‘~점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창의적 사고가 환경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고 했으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5. 정답 ④

비운(否運) 막힐 비, 옮길 운):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또는 불행한 운명.

① 부인(否認) 아닐 부, 인정할 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② 부정(否定) 아닐 부, 정할 정):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③ 부결(否決) 아닐 부, 결단할 결):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16. 정답 ③

밑줄 친 부분은 생각의 범위가 말의 범위보다 넓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각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③이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②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음성 형식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에 해당한다.

④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끊어서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분절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

17. 정답 ④

찬반 입장을 나누어 말하는 방식은 토론에 해당한다.

① ‘패널 토의는~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와 ‘심포지엄은~그 형식이 비슷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첫 번째 문장에서 토의의 목적이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 얻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지막 문장의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정답 ④

‘그’의 연주에는 ‘야성, 힘, 귀기’ 등이 없고 ‘감정의 재’만 있으며 ‘나’의 연주에는 ‘빈곤, 주림,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이 있다. 따라서 ‘감정의 재’는 ④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19. 정답 ②

소년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소년은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통해 ‘둘째 대장’의 행동을 예측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20. 정답 ④

학생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나타내자 교수가 열의 있게 강의하게 되었

다. 즉 공감하는 듣기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④가 가장 적절하다.

①, ② 이 글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다.

③ 제시문의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해당한다.